

현행 약사연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유연미 · 스리니바산 산무감* · 유동주** · 용철순* · 유봉규*#

영남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보스톤대학교 College of Art and Sciences
(Received September 20, 2007; Revised November 30, 2007)

Problems and Possible Improvement for Current Continuing Education of Pharmacists

Yeoun-Mi Yoo, Srinivasan Shanmugam*, Dong-Joo Yoo**, Chul Soon Yong* and Bong Kyu Yoo*#

Graduate School of Clinical Pharmacy, Yeungnam University, 317-1 Daemyung-dong, Nam-gu, Daegu 705-802, Korea

*College of Pharmacy, Yeungnam University, 214-1 Dae-dong, Gyongsan 712-749, Korea

**College of Art and Sciences, Boston University, 725 Commonwealth Avenue, Boston, MA 02215, USA

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problems and possible improvement for current continuing education (CE) of pharmacists by assessing present status and performing survey data analysis. Present CE for pharmacists is administered by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and it has three separate modules for pharmacists depending on their specialty. The modules for community pharmacy and hospital pharmacy are mainly focused on patient care while the module for industrial pharmacists is on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of drugs. Survey data analysis revealed that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rs feel that present CE is inappropriate in terms of length and contents of the CE. Furthermore, about 40% of all responders answered it does not help them update professional knowledge. With regard to possible improvement of CE, 86% of the responders felt an accreditation council of CE needs to be established, and 64% answered that present three separate modules should be unified. More than three quarter (79%) of the responders wanted to have some part of CE administered by correspondence instead of on-site CE.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present CE for pharmacists appears to need improvement to ensure appropriate drug use and to meet expectations of pharmacists who see problems on the present CE.

Keywords □ survey analysis, continuing education, community pharmacist, hospital pharmacist, accreditation council

오늘날 약사는 소비자권리의 증대와 양질의 약료서비스 요구,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체계의 변화 및 신약과 새로운 지식의 지속적인 출현 등으로 인하여 약에 관한 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¹⁻³⁾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약사연수교육제도는 이러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⁴⁾

약사는 연수교육(continuing education)을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약학지식을 이해하여야 약의 전문인으로서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신약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료를 수행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는 약사로

하여금 약료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에게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⁵⁻⁷⁾ 우리나라 약사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에게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하위법령인 대통령(약사법 시행령) 제33조와 보건복지부령(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에 관계규정을 두어 매년 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법령에 따라 현재 대한약사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약사연수교육 계획서에 의거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교육실적을 익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오고 있다.

그러나 약사연수교육은 실제로 각 지부나 분회별로 이루어지 때문에 연수교육의 시행방법,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자의 자격 및 약사의 참여도 등에 있어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실시되고 있다.⁸⁾ 더욱이 교육내용에 불만을 가진 약사들의 교육 중 이탈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연수교육에 참여하는 약사의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때

#본 논문에 관한 문의는 저자에게로
(전화) 053-810-2822 (팩스) 053-810-4654
(E-mail) byoo@yumail.ac.kr

년 연말이 되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를 구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충교육을 각 지부나 분회별로 실시하는 것이 현실이다.⁹⁻¹¹⁾ 따라서 현재의 연수교육제도는 약사로 하여금 양질의 약료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불안정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의 약사연수교육의 내용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과 보완할 점을 발견함으로써 약사가 진정한 약의 전문가로서 그 직능을 수행하고 나아가 양질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있어서 약사연수교육의 내용과 운영 실태는 대한약사회의 연수교육계획서와 관련자료를 참고 하였다. 국내에서 약사연수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미 논문으로 발표된 자료와 외국의 사례로서 미국의 약사연수교육제도도 참고하였다.¹²⁻¹⁵⁾ 또한 우리나라 약사들을 대상으로 현행 약사연수교육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07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약사 100명에게

전화와 우편 및 방문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응답자 개인정보에 관련된 영역 3개 문항, 연수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영역 5개 문항, 연수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한 영역 5개 문항 등 총 13개의 문항으로 하였으며(Table I) 설문조사에 응한 약사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을 보장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의 유의성검증은 SAS(version 9.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교차분석, t-test 분석(성별), 일원배치분산분석(연령별, 직종별)을 실시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현재 약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한약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약사연수교육은 약사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서 약국개설약사 또는 근무약사, 의료기관 근무약사,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 근무약사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기 별도의 계획서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공직이나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약사는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희망자에 한해서만 시행하고 있다. 연수교육시간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은 매년 6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는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약사연수

Table I - 설문조사문항의 구성

I. 응답자 개인정보관련 (3문항, 1번-3번 문항)	
1. 귀하의 성별은? (①남성 ②여성)	
2. 귀하의 연령대는? (①20대 이하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이상)	
3. 귀하의 현재 근무직종은? (①개국약사 ②근무약사 ③병원약사 ④기타)	
II. 연수교육의 문제점 관련 (5문항, 4번-8번 문항)	
4. 현재의 연수교육시간이 약학발전속도에 부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잘 모르겠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5. 현재의 연수교육내용이 약학발전속도에 부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잘 모르겠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6. 현재의 연수교육내용이 약사로서의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잘 모르겠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7. 현재의 연수교육이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잘 모르겠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8. 현재의 연수교육이 주로 동원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잘 모르겠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III. 연수교육의 개선방안 관련 (5문항, 9번-13번 문항)	
9.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인증하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혹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연수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잘 모르겠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0. 약국개설 및 근무약사, 의료기관 근무약사, 제약회사 및 도매상 관리약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연수교육을 개선하여 어떤 분야에서 근무하든지 약사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지식을 골자로 하는 연수교육으로 통합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잘 모르겠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1. 연수교육 때문에 직장을 결근하는 일이 없도록 연수교육의 일부를 통신교육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잘 모르겠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2.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약사연수교육으로 전환된다면, 연수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약사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잘 모르겠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3.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연간 연수교육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9시간 이내 ②9-12시간 ③12-15시간 ④15-18시간 ⑤18시간 이상)	

Table II - 약국개설약사 또는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한 2007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

구분	과목	시행일시	강사	배정시간
필수 과목	복약지도(2시간) 의약품사용평가(2시간)	지부(또는 분회)의 계획에 따라 연중 실시	대한약사회 지부에서 선정 또는 복지부 협조	4시간
선택과목	약사윤리(1시간) 약사관련법규해설(1시간) 보험제도 및 실무(1시간) 한약제제(1시간) 건강기능식품(1시간) 의약품유통(1시간) 마약류 취급자 교육(1시간) 금연상담(1시간)	지부(또는 분회)의 계획에 따라 연중 실시	대한약사회 지부에서 선정	4시간
	인터넷교육(2시간)	연중실시	대한약사회에서 선정	
	대한약사회 지부(또는 분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세미나 교육(2시간)	연중실시	연수교육인정 교육기관과 교육인정시간은 지부(또는 분회)에서 결정	
계				8시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보다 2시간이 더 많은 매년 8시간씩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교육의 내용은 각종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 처방전 검토 및 복약지도에 필요한 지식, 의약품의 제조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식 등 약사에 게 새로운 지식습득과 자질향상을 기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약국개설약사와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은 대한약사회 지부 또는 분회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다(Table II). 2007년도 연수교육의 경우, 개설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필수과목에는 복약지도 및 의약품사용평가의 2개 과목이 있으며 선택과목에는 약사윤리, 약사관련법규해설, 보험제도 및 실무 등 11개의 과목이 있다. 필수과목교육의 담당강사는 대한약사회의 각 시도 지부가 자율적으로 선정하거나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시행일시는 각 시도 지부 또는 분회의 계획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선택과목교육의 담당강사는 시도 지부에 위임하지 않고 대한약사회가 직

접 선정한다. 선택과목교육의 시행일시는 과목명이 지정된 경우는 각 시도 지부 또는 분회의 계획에 따라서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실시하지만 과목명이 지정되지 않은 인터넷교육과 각종 세미나 교육은 약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의료기관 근무약사의 경우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구분이 없이 국내외 학술대회나 학술세미나 또는 각종 연수교육에 참가하거나 한국병원약사회가 인정하는 임상약학강좌나 특수연구회 또는 한국병원약사회 각 시도 지부 세미나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Table III). 제약회사나 도매상 근무약사의 경우는 필수과목으로 한국제약협회가 주관하는 연수교육을 지정하고 있으며 선택과목으로는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또는 대한약사회가 인정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의 약사연수교육은 약사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서 약국개설약사 또는 근무약사, 의료기관 근무약사,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 근무약사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의료기관 근무약사를 위

Table III - 의료기관,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한 2007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

구분 (필수/선택)	연수교육내용	비고
의료기관 근무약사	구분 없음	국내외 학술대회, 학술세미나, 연수교육(신규약사 연수교육, 관리자 연수교육, 중견리더 연수교육), 임상약학강좌, 임상약학후 연수과정, 특수연구회, 한국병원약사회 각 시도 지부 세미나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 근무약사	필수과목	제약 및 유통관련 연수교육
	선택과목	KGMP 교육, KGSP 교육, 국내외 학술대회, 각종 세미나,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한국제약협회 또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또는 대한약사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

KGMP: 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우수의약품제조 관리기준), KGSP: Korea Good Supplying Practice(우수의약품유통 관리기준).

Table IV - 설문조사 응답자의 분포(n=100)

parameters	frequency
성별	
남성	24
여성	76
연령*	
20-29세	17
30-39세	23
40-49세	40
50세 이상	19
직종	
약국개설약사	50
약국근무약사	26
의료기관 근무약사	15
기타	9

*응답자중 1명은 연령을 기재하지 않았음.

한 연수교육내용은 다양하고 심화된 약사직능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약국개설약사나 근무약사를 위한 교육내용이 앞으로 지향해 나아가야 할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 근무약사를 위한 연수교육내용은 대부분이 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관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약국개설약사나 근무약사를 위한 교육내용과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더군다나 의약품사용이나 복약지도와 같이 약사직능수행에 핵심적인 내용이 필수과목에 포함되지 않아 만일 이 직종에 장기간 근무하던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게 될 경우 이들의 처방전검토 및 복약지도능력 부족은 우수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한약사회는 제약회사나 도매상에 근무하는 약사를 위한 연수교육에 복약지도와 의약품사용평가에 관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약사의 성별은 여자가 76%이고 남자가 24%로 나타났으며, 나이분포는 40대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3%, 50대 이상 19%, 20대 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IV).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약사의 직종분포는 근린약국에 종사하는 약사가 76%로 가장 많았으며(이들 중 2/3는

개설약사이며 1/3은 근무약사) 이어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약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약사연수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영역 5개 문항 중 현재의 연수 교육시간과 연수교육내용이 약학발전 속도에 부응한다고 생각하지는지에 대한 두 문항에서 그렇지 않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약사는 전체 응답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반면에 그렇지 않거나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약사는 15% 미만이었다(Table V). 이 두 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성별 및 연령으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직종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p-value: 0.028)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부정적 응답을 한 약사는 약국개설약사와 근무약사의 경우 약 40%에 달했지만 병원약사의 경우는 약 20%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이는 약국개설약사 또는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의 시간과 내용이 병원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에 비하여 프로그램 구성이 뒤떨어져 만족도가 낮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연수교육내용이 전문지식의 습득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약사는 전체의 29%에 불과한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약사는 전체의 41%에 달했다(Table V). 이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응답자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직종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p-value=0.027) 차이를 보여 개국약사의 경우 긍정적 응답이 26.3%에 불과하였지만 병원약사의 경우에는 두 배가 넘는 약 53.3%에 이르렀다. 이는 병원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내용이 국내외 학술대회, 특수연구회 및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등 근린약국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비하여 한층 전문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대한약사회는 근린약국약사를 위한 연수교육을 보다 전문적인 내용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약사연수교육이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자의 41%는 그렇지 않다고 했으며 그렇다고 응답한 약사는 17%에 불과하였다. 더군다나 약사연수교육

Table V - 약사연수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의 분포

		never	no	neutral	yes	very	no response
문제점 관련문항	약학발전속도에 부응한다	6	39	42	13	0	0
	약학발전속도에 부응한다	9	42	34	15	0	0
	전문지식 습득에 도움이 된다	10	31	30	29	0	0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된다	5	36	42	17	0	0
	동원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0	19	42	35	3	1
개선방안 관련문항	전문기관의 필요성 ^a	0	1	13	80	6	0
	통합연수교육의 필요성 ^b	0	16	17	61	3	3
	통신교육의 필요성	0	6	15	62	17	0
	개선후 별척강화의 필요성	2	18	32	43	5	0
	적절한 교육시간	<9시간: 27 9-12시간: 32 12-15시간: 14 15-18시간: 5 >18시간: 19					

never: 전혀 그렇지 않다; no: 그렇지 않다; neutral: 잘 모르겠다; yes: 그렇다; very: 매우 그렇다; ^ap-value<0.0001 (yes와 very의 합계를 never와 no와 neutral의 합계와 비교); ^bp-value: 0.0008 (yes와 very의 합계를 never와 no와 neutral의 합계와 비교).

이 동원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약사는 전체 응답자의 38%이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약사는 전체의 19%로 나타남으로서 약사연수교육이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성별, 연령 및 직종별로 유의성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약사연수교육의 문제점에 관한 영역 5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약사연수교육은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우수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각종 행사시 동원목적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린약국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병원약사의 경우에 비하여 프로그램의 구성이 뒤떨어져 있으며 전문지식 습득기회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연수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한 영역 5개 문항 중 첫째 문항인 연수교육을 관리하고 그 내용을 인증하는 기관의 설립이나 선정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서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약사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이 질문에서 잘 모르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약사는 14%에 불과했다(p-value<0.0001, Table V). 이 결과로 볼 때, 압도적으로 대다수의 약사는 현재의 연수교육에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연수교육을 관리하고 그 내용을 인증하는 기관의 설립이나 선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을 Likert 5

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를 성별, 연령별 및 직종별로 비교한 p-value는 각각 0.937, 0.941 및 0.182로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Fig. 1A). 그러나 대체로 근무약사의 경우 병원약사에 비하여 그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항인 연수교육을 직종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실시할 필요성에 관한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64%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잘 모르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하였다(p-value: 0.0008, Table V).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Likert의 5점 척도로 계량화하여 남자 약사와 여자 약사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남자 약사는 3.65±0.637, 여자 약사는 3.49±0.841로 서로 유의성 있는 차이 없이 모두 통합연수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나타났다(p-value: 0.327). 통합연수교육실시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연령별로 비교하여도 40세 미만(3.55±0.815)과 40세 이상(3.51±0.796) 사이에 유의성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직종별로는 차이를 보여 병원약사의 경우 3.73±0.704로서 통합연수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높이 인식하고 있는 반면, 근린약국약사의 경우는 이보다 낮았다(Fig. 1B). 특히 약국개설약사가 아닌 근무약사의 경우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병원약사와 비교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value: 0.158).

셋째 문항인 연수교육의 일부를 통신교육으로 대체할 필요성에 관한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4분의 3이 넘는 대다수가(79%)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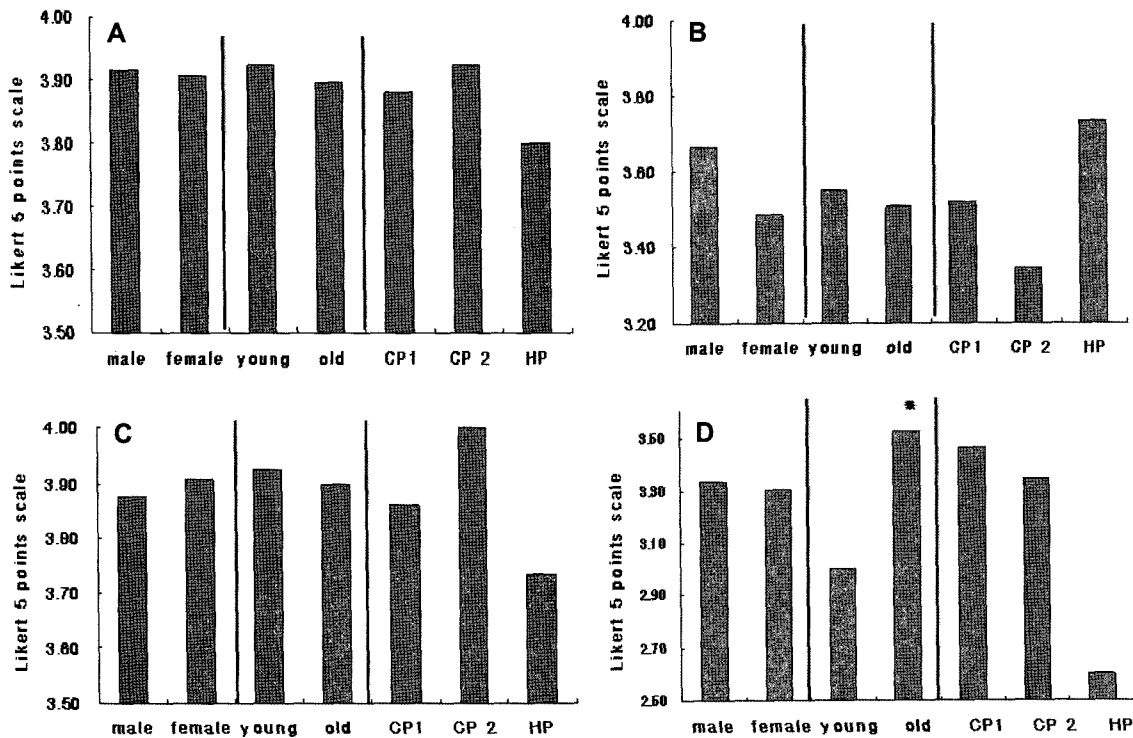


Fig. 1 - 약사연수교육의 개선방안 관련문항에 대한 응답의 분포. A: 전문기관의 필요성, B: 통합연수교육의 필요성, C: 통신교육의 필요성, D: 별칭강화의 필요성, CP1: 약국개설약사, CP2: 근무약사, HP: 병원약사, young: 40세 미만, old: 40세 이상, *: p-value: 0.004 (versus young).

Table VI - 약사연수교육의 개선방안 관련문항에 대한 응답의 성별, 연령별 및 직종별 분석

		남성	여성	young (<40세)	old (≥40세)	CP1	CP2	HP	기타
전문기관 필요성	never	0	0	0	0	0	0	0	0
	no	0	1	0	1	0	0	1	0
	neutral	2	11	6	7	8	4	1	0
	yes	22	58	31	48	40	20	13	6
	very	0	6	3	3	2	2	0	3
통합교육 필요성	never	0	0	0	0	0	0	0	0
	no	2	14	7	9	7	6	2	2
	neutral	4	14	5	13	12	6	0	2
	yes	18	45	27	35	29	13	13	5
	very	0	3	1	2	2	1	0	0
통신교육 필요성	never	0	0	0	0	0	0	0	0
	no	1	5	4	2	2	1	2	1
	neutral	5	10	4	10	10	3	2	0
	yes	14	48	23	39	31	17	9	5
	very	4	13	9	8	7	5	2	3
별척강화 필요성	never	0	2	2	0	0	1	1	0
	no	3	15	11	7	6	3	7	3
	neutral	10	22	13	18	18	8	4	0
	yes	11	32	13	30	23	14	3	3
	very	0	5	1	4	3	0	0	3

never: 전혀 그렇지 않다; no: 그렇지 않다; neutral: 잘 모르겠다; yes: 그렇다; very: 매우 그렇다; CP1: 약국개설약사; CP2: 근무약사; HP: 병원약사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잘 모르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21%에 불과하였다(p-value<0.0001, Table V).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Likert의 5점 척도로 환산하여 성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에도 대부분의 약사가 통신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C). 직종별로는 병원약사의 경우 3.73 ± 0.884 로서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약사에 비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으며, 근무약사의 경우는 가장 높은 점수인 4.00 ± 0.693 을 주어 대조를 이루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value: 0.29). 그러나,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병원약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수교육이 현장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다소 있더라도 그 교육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근무약사의 경우는 연수교육이 전문지식의 습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시간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통신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문항인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별척강화의 필요성에 관한 문항에서 응답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별척을 반대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52%에 거의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V).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Likert 척도로 환산하여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차이를 보여 40세 이상 약사는 3.53 ± 0.796 으로 40세 미만 약사의 3.00 ± 0.961 보다 유의성 있게(p-value: 0.004) 높게 나타났다(Fig. 1D). 직종별로는 약국개설약사의 경우 3.46 ± 0.788 로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이어서 근무약사, 병원약사의 순으로 나

타났다. 근무약사의 경우 별척강화에 대한 의견은 3.35 ± 0.846 으로 약국개설약사에 비해서는 덜 긍정적이었지만 병원약사에 비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p-value: 0.012)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문항인 적절한 연수교육시간에 대한 문항에서는 9-12시간을 원하는 약사가 32%로 가장 많았으며 18시간 이상을 원하는 약사도 19%나 되었다.

결론

현행의 약사연수교육은 직종별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직능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를 대하지 않는 영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거나 근무약사로 취업할 경우 처방검토나 복약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미국의 약사연수교육은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모든 약사로 하여금 약의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지식을 지속적으로 재무장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현재의 직종별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약사의 대부분은 현행 약사연수교육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거의 절반 정도는 연수교육시간과 내용이 약학발전속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지식의 습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더욱이 연수교육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약사는 전체의 17%에 불과하

였으며 약사회 행사를 위한 동원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약사가 전체의 38%에 이르렀다. 따라서 약사연수교육을 관리하고 그 내용을 인증하는 전문기관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교육을 직종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체의 6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수교육의 일부를 통신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분 3이 넘는 대다수가 찬성하여 연수교육 참석에 따르는 시간적 손실을 줄이고 각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약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제도로의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별책강화에 대해서도 놀랍게도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찬성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현재의 연수교육은 그 내용과 시간 및 방법 등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Wick, J. Y. and Zanni, G. R. : Exploring buzzwords: enhancing general knowledge. *Consult. Pharm.* **21**, 848 (2006).
 2) Rouse, M. J. :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in

pharmacy. *J. Am. Pharm. Assoc.* **44**, 517 (2003).
 3) Bauer, G. A., Szeinbach, S., Griffith, N. and Siegel, J. : Perceptions of quality and value in state and local pharmacy professional organizations. *Am. J. Health-Syst. Pharm.* **59**, 1082 (2002).
 4) 연수교육의 내실화. *약사공론* (2002. 12. 17).
 5) 약사법 제13조의 2 (연수교육).
 6)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업무의 위임 위탁) 2항.
 7)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1항.
 8) 대한약사회 : 복약지도 실무지침-연수교육 관련규정 (2005.3).
 9) 이용복 : 약사 연수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대한약사회지* **6**, 17 (1995).
 10) 조광연 : 서울, 연수교육미필자 보충교육 실시. *약사공론* (2006. 3. 24).
 11) 대약 연수교육위, 미필자 보충교육. *약사공론* (2001.6.29).
 12) 박용석 : 약사연수교육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6).
 13) 권경희 : 미국의 약사연수교육제도. *대한약사회지* **6**, 57 (1995).
 14) 기획국 : 약사연수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대한약사회지* **6**, 67 (1995).
 15) <http://www.acpe-accredit.org/> (accessed on 2007. 9. 17).